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양총림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심의 고여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적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경치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양총림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법공양 페이지

목표를 달성하는 마음 자세

문 스님, 요즘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어떤 일에 대하여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아니면 그냥 관하면서 볼 흐르는 것처럼, 조금은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마음을 놓고 살아야 하는 것인지 갈피를 잡지 못하겠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려다 보니 거기에 얽매이는 느낌도 들고 몸도 따라 주지 않아서 힘들고, 반대로 그냥 놓으면서 힘없는 대로만 살려도 하니 이렇게 살아가는 안 될 것 같아 항상 반대로 열심히 하려고 마음을 돌려놓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 욕심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아직 주인공 공부 많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지만 바르게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답 여러분이 진짜로 자기를 믿고 절감을 해야 되는 거지 그걸 내가 말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아주 급박할 때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그 심정이 되어 겨우 '너만이 할 수 있다.' 하고 믿고 그 자리에 놓게 되는 거죠. 어떨 때는 외국지원에 계시는 신도들이 절박하게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알았어. 절박한 만큼 간절하게 관해 봐!' 그러면 그 이틀날이고 전화가 또 두루르 옵니다. '해결되었어요.' 하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러면 나는 그렇습니다. '네 전깃줄과 내 전깃줄이 붙어 아님 까닭에 불이 들어왔을 뿐이다. 내 전깃줄은 제일이고 네 전깃줄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의 전깃줄과 내 마음의 전깃줄을 같이 합쳐졌으니 불이 들어온 거다. 그러니까 내가 낫게 한 것도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진정으로 믿고 그렇게 하면... 자기 뿌리를 자기가 안 믿으면 누굴 믿을 겁니까? 이름을 믿을 겁니까? 형상을 믿을 겁니까? 또 스님들을 믿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자기를 이끌어 가는 진실한 자기를 믿어야죠.

이런 고로 우리가 좀더 생각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생각해서, 일을 할 때나 잠을 잘 때나, 또는 앉아 있을 때나 서 있을 때나 항상 자기 뿌리를 잊지 않을 것을 자기 뿌리에 맹세하는 반면에 자기 씩은 열심히 뛰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내가 예전에 이런 말을 했죠? 부처님이 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할 때나 너는 뛰어라.' 라고요. 그 말이 그냥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하고 가시는 데 여러분은 폐기가 없어서 과감히 뛰어넘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더 있다 죽으나 덜 있다 죽으나, 이따 죽으나 또 먼저 죽으나 죽는 것은 똑같아요. 하늘이 무너진다 해도 마찬가지로요. 그런데 뭐가 두려워서 뛰어넘질 못하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마음인데 말입니다. 죽으나 사나 뛰는 마음 자체가 바로 피안으로 넘어서는 도리입니다. 한 생을 살면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 어쩌나, 저렇게 하면 어쩌나' 하고 망설이기 때문에 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사적으로 이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 결사적으로 이 도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은 왜인가? 여러분이 각각 소임을 따르다로 가지고 있습니다. 교직이면 교직, 회사원이면 회사원, 장사면 장사 이렇게 제각각을 다 가지고 있는 그 소임에 따라서 터득을 하면 그게 개혁이고, 그게 계발이고, 그게 바로 나를 내가 승화시키는 길입니다. 억지로 높은 자리를 뺏어서 올라갈 양으로 살아 필요 없이 자기가 맡은 소임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과정에서 누구냐가 그렇게 해 나가야 발전이 있는 겁니다.

발전이라는 것은 마음의 발전을 말합니다. 마음의 발전이 되면 스스로 행동도 발전하게 되므로 그것은 바로 여러 사람들에게 다 좋은 일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또 현자관법의 소임이 발전한다면 그 뒤에 발전을 못 하고 가는 사람들도 덩달아 다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못 먹고 굶주린다고 해서 나의 자부심을 탁탁 털어내 버리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내가 과거에 그렇게 남을 못살게 해서 지금 못사는 거니까 그 뜻을 아시고

모든 것 수행과정으로 생각하면 남의 탓 하지 않고 감사하게 돼

'그렇게 못살게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못살게 된 원인이 거기에 있으니까 내 탓이다. 수행해서 이걸 다 녹이리라.' 하고선 모든 걸 거기가 놓아 나가야 하는 겁니다. 거기가 놓이면 없어지는 겁니다. 조금도 예 누리가 없거니와 조금도 허망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말을 하죠. 주인공에 놓고 진짜로 믿는다면은 거기서 보디가 드드 돼 줄 수 있고 해결사도 돼 줄 수 있 다구요. 해결사가 돼 준다고 해서 잔뜩 잘못해 놓은 거를 금새 없애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 또한 다 녹이고 끈기 있게 나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하는 그런 위치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대중대중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내가 한 게 없이 부처님께서 하신 거죠. 잘못된 거는 중생이 한 거고 잘한 거는 자기 자부처가 한 거니까, 허허...

우리가 살면서 더불어 함께 도반으로서 모든 것을 이렇게 배우고 나간다면 오다음 생에 어떠한 차원으로 나와도 여러분이 놓아 놓은 자식들도 염주알 꿰지듯 따라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잘못해도 같이 따라 들어가고 잘해도 같이 따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생이 따로 있고 현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얼마 안 가서 내생이 되고 현생이 됩니다. 그러니 거리가 멀지 않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도 변치 않고 주인공에다 모든 걸 몰아서 한도량에 한 마음으로 놓고, 일체제불과 한마음이 돼서 우리가 결산을 본다면 크게 이룰 겁니다. 아아, 허공에 꽃이 피어서 그냥 비 내리듯 말입니다.

죄와 업을 녹이는 도리

문 저는 사회에 그릇된 죄를 지어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부처님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생활하던 중 스님의 법문을 접하게 되었고, 모든 것을 제 탓으로 여기며 무사히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에 돌아오고 나서 하고자 하는 일이 되지 않으면 '내가 죄가 많고 팔자가 사나워서 이런 고통을 겪는구나. 우리 집안 조상님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남들처럼 쉽게 일어서지를 못하구나!' 하며 자책 아닌 자책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감시절 항상 수지독송했던 뜻으로 훈 선생은 '죄는 본래 자성 없고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 만일 없으면 죄업 또한 스러지네. 죄와 망심 모두 놓아 마음 모두 공하여야 이를 일러 이름하여 진실한 참회라 하네.'라고 쓰여 있던데, 저처럼 죄와 업이 많아서 저를 도와 줄 부모도 없고 의지할 만한 사람도 없는 사람도 부처님의 말씀처럼 저의 근본자리에 맡겨놓기만 하면 죄와 업이 녹아지고, 장애 없이 하고자 하는 일을 어렵지 않게 해나가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 일체 만법이 나한테 부딪치고 돌아가는데 내가 공한 도리를 안다면, 내가 공했는데 업보가 어디에 붙나? 상대도 공했고 나도 공했는데 어디에 업보가 붙고 인과가 붙느냐 이겁니다. 간

단히 비유해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전생이라는 걸 붙이지 말라 이거예요. 과거를 붙이지 말라. 왜? 전생에 살던 습성을 내가 지금 현재에 가지고 있고 불성은 전생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건데 구태어 왜 그거를 업보라. 인과라 하느냐 이거죠. 그리고는 무슨 조상의 탓을 하질 않나. 또 부모가 어떻게 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자식들이 원망을 하는데 그런 사람을 보면 참기가 막혀요.

모든 번뇌 여의고 맑고 청정한 마음 생겨나면 부처는 저절로 나타나며 육진의 도적 잘 막아내고 육근작용에 걸리지 않으면 바로 부처가 되는 것

아, 내가 낳기 이전도 조상이요, 부모가 낳기 이전도 조상인데 아니, 조상이 들어나는 겁니다. 부처 낳기 이전도 조상이요, 다 조상인데... 그런데도 조상 탓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 어느 부처가, 어느 부모가 자식 잘못했다고 하느냐는 겁니다. 그런 법은 없어요. 그 뒷면의 뜻을 보면, 잘못돼서 내가 죽게 되고 부모로 인해서 죽게 됐다 하더라도 오히려 뜻으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부모를 속색이 없는 게 인과가 워서 돌아야 할 것인데 왜 부모를 원망합

업장소멸 자기 근본에 맡기는 길뿐

니까. 업보가 있다고 한다면 소멸이 안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냥 생각을 하고 사느냐 한생각을 하고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생각을 하면 나 혼자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몸 속의 모든 생명들이 다 더불어 같이 해주기 때문에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알면 한생각이 되는 거고 그걸 모르면 그냥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 수많은 세월을 걸어오면서 습이 많아진 그 자체를 어떻게 단번에 소멸을 시키니까, 참회를 아무리 해도 참회한 것이 도로 없어지고 또 다른 일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 안의 근본에 맡겨놓아라. 이 몸은 시자일 뿐이다. 심부름꾼일 뿐이다. 나의 원동력인 근본이 나를 움직여주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니 모든 것을 거기가 맡겨라.' 하는 겁니다.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일거수일투족을 다 거기가 맡기라는 겁니다. 웬 줄 아십니까? 살아오면서 물들은 습관과 업장이 너무 진하기 때문에 업장을 소멸시키는 데는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죠. 모든 걸 관하고 놓으면은 그 반면에 소멸이 되니까요. 소멸이 되니까 이루어지는 겁니다. 소멸이 안되면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업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바로 업보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못

생활 속에서 도를 이루는 과정

문 '살은 고가 아니다'라는 책을 통해서 스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또한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 진리를 이렇게 이해하기 쉽고 분명하게 보여주신 정말 고마울 따름입니다. 스님들께서는 진리를 깨치기 위하여 몇 년씩 토굴에서 먹지도 자지도 않으면서 수도를 하신데 그런 과정을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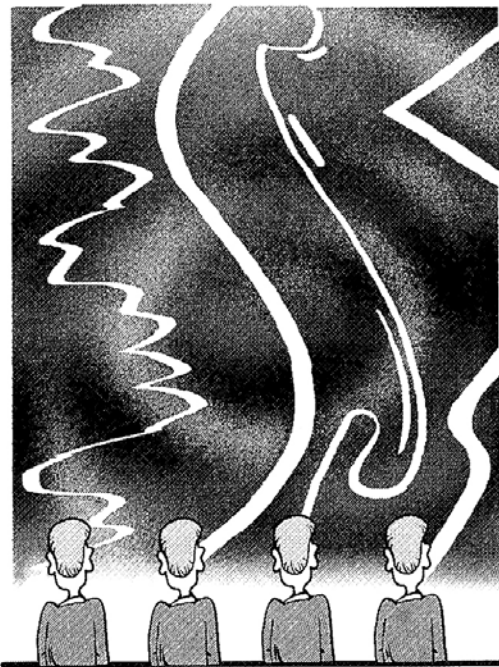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벗어나는 겁니다. 다만 성장하는 수행 과정이지 업보가 아니에요. 누가 자기 잘 되려고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지. 자기가 모르니까 불어닥치는 일들이 고통스럽다고 하는 거지. 모든 걸 수행 과정으로 알면 힘이 들지 않아요. 남을 탓하고 원망하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아마도 사형선고를 받고 사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사형선고에다가 무

으로 보면서 일반 중생이 이 복잡하고 물질만능주의에 젖어 살면서 이생에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어 낼 수 있을까 두렵고, 도를 구한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꼭 스님이 되어야 이생에 득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고승들의 득도 과정을 보면 실로 일반인들에게는 다른 세계로 보인다고. 근기의 문제이고 업의 문제이겠지만, 일반 중생도 경성을 하여 확철대로 할 수 있는지도. 그것이 생활 속에서 가능한지도, 또 그것이 어렵다면 생활을 떠나서 찾아야 하지 않겠는지도.

답 세속에서 공부할 수 있는 공부를 해서 승(僧)으로서

공부를 한다 하기 이전에, 내 마음의 근본을 계발하고 발견하려면 주인공 자리를 향시도 놓치지 말고 일체를 그 주처에서 한다는 것을, 또 주처에서 들고 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관을 통해서 주처에서, 환근에서 들고 낸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바로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일임하니까 몽땅 놔버리는 게 되는 것입니다.

일체를 놔버리라고 했지만, 일체를 놓아버리면서 또 여여하게 살라고 한 거지 여여하게 살지 말라고 한 게 아닙니다. 공했으니까 자기까지도 놔버리라고 하는 거죠. 주처에서만 움직여주게 하는 거니까 말입니다. 마음이 움직여주지 않는다면 육체가 움직여주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불락 놔버리라고 하는데 '불락 놔버림을 받는 자는 누구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실로 주처를 알려면은 주처와 지금 현재의 내가 틀어 아닐 때에 비로소 자유인인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이 세상의 생명, 유생 무생이 다 나 아님이 하나도 없을 때, 비로소 내 앞에 있는 인연들도 다. 그때는 자기 마음대로 건질 수가 있다 이 소리입니다. 물질로 건지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의 작용으로 건지게 되어요.

그러니까 첫째, 속에서부터 내 스스로서 그것을 알고 바깥으로 나오고 바깥에서 들고 내고 하는 데에 여여하게, 그대로 진실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 진실하게 한다고 그래서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 배울 때는 진실하게 할 양으로 노력을 해야지 노력 없이 관해서는 안 됩니다. 관하는 것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장님이 지팡이 짚듯이 주인공을 잡고 그렇게 가다가 보면 눈을 뜨게 되니 지팡이는 저절로 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때는 지팡이를 짚지 않아도 다닐 수 있는 거죠. 그때가 돼야 하지마는, 하여튼 잡은 거조차도 없다고 할 때까지 그 지팡이를 쥐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 공부를 해서 깨달으려면 아주 투철하게 해야만 되고, 고가 따라야 공부가 된다 하는 것도 고정관념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도 놓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걸 먹었으면 이것도 놔 버리고 저것을 먹었으면 저것도 다 놔 버려야 해요. 빈 강릉 들고 애쓰지 말고, 앞으로 올 것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먹고싶으면 먹고 목마르면 그냥 펴서 마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놔버려요. 하나하나 자기 주처에다 놔버리게 되면, 다 거기서 한다고 놔버리게 되면 특특한 게 오는 게 있어요. 그것은 자비의 칼이요. 시퍼런 자비의 칼이 완벽하게 설 때가 있어요. 그때 비로소 뜻이 갈아지는 거죠.

그러니 열심히 해서 이 도리를 깨우쳐야 내가 하는 이 말이 이해가 갈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해 봐요. 이 세상에 눈 가지고 코 가지고 남과 같이 태어나서 왜 못해요? 누가 그렇다고 해서 사랑을 하지 말래나요. 공부를 하지 말래나요. 돈을 벌지 말래나요?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말래나요. 나가 놀지를 말래나요. 다만 일체를 주처에서 한다는 걸 진짜로 믿고 들어가라 이겁니다.

그럼으로써 선(禪)이라는 자체는 내가 한다는 생각 자체도 없어야. 급하니까 빨리 해야 하는 것도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면서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돼야 빨리 성장이 되는 것이고 훈련이 깨우칠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빨리 한다. 나는 이렇게 해야 한다. 하나부터 열까지 한다는 생각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일을 하면서도 일을 한다는 생각이 없어야 하고, 자면서도 잔다는 생각이 없어야 하고, 보면서도 본다는 생각이 없어야 하고, 들으면서도 듣는다는 생각이 없어야 하고, 발로 딛고 다니면서도 다닌다는 생각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 가지 법을 손으로 주무르고 일을 했다 하더라도 했다는 생각이 없어야 하는 것이 바로 훈련이 깨우칠 수 있는 직접적인 자를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많으면 달이 나타나 보이지만 물이 흐르면 달은 숨어버리고 만다. 맑은 물을 따라 달이 오는 것이 아니고 흐린 물을 따라 달이 가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도 그와 같은 것이므로 마음이 청정하면 부처가 나타나지만 마음이 어두우면 부처가 보이지 않는다. 부처가 다른 곳에서 온 것도 아니요, 부처가 다른 곳으로 가버린 것도 아니다. 모든 번뇌를 여의고 마음이 고요하여 맑고 청정하면 부처는 저절로 나타나고 육진의 도적을 막아내고 육근의 작용이 걸리지 않으면 바로 부처가 되는 것이다. 청산은 말이 없고 유수는 터가 없는데 자연과 같이 마음이 정중하여 변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바로 부처가 되는 것이다.' 라고 써서 공부하는 데 지침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 뜻을 잘 음미해 보시면서 어떻게 해서